

북한의 가요 정책

김성진 / 중앙일보 전문기자

북

한에서 90년대 최대 '히트 상품'은 무엇일까?

북한 대중 가요 '휘파람'인 빅히트라는 지적이 많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90년대 한국 문화에 남긴 충격만큼 북한에서도 '휘파람'의 문화 충격은 엄청나다라는 것이다.

다만, 서태지가 기존 기독교 문화에 대한 반발을 통해 공감을 얻었다면, 북한의 '휘파람'은 북한 기독교층이 의도하고 조상한 결과라는 차이는 있다. '휘파람'은 발표 시점인 1991년을 전후해 사회에 만연되고 있던 자유연애, 자유결혼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휘파람'의 히트 비결은 간단하다. 청춘 남녀의 애뜻한 사랑을 경쾌한 전자 리듬에 담았다. 주제도 전례가 없거니와 반주 역시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파격적이다. 사회주의 동원체제로 상징되는 북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연적 감정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당성으로 이를 극복해나가는 '미덕'만이 강조돼왔던 사회다.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휘파람'은 북한 주민들의 가슴속에 묻혀 있던 사랑의

감정을 불러내기에 충분했다. '휘파람'을 불며 사람의 감정을 淨化(카타르시스)했던 것이다. 인민 배우인 가수 전해영의 로맨틱한 노래와 앙증스런 춤, 이를 받쳐주는 보천보 전자악단의 경쾌한 사운드는 근엄한 표정으로 '김일성 원수'와 '혁명 정신'을 노래하는 혁명 가요와는 완전히 구분됐다. '휘파람'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어제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북순이네 집앞을 지날 땐 이 가슴 설레여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휘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호
 휘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호

한 번 보면은 어쩐지 다시 못 볼 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싶네
 오늘 계획 삼백(300)을 했다고 생긋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인다오 이 일을 어찌하라
 휘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호
 휘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호

가요는 혁명적이며 통속적이어야

북한에서 가요는 '가사와 선율이 결합된 비교적 작은 양식의 독립적인 성악곡'으로 정의되고 있다(「조선어사전」). 평양에서 발행되는 예술 잡지「조선예술」은 가요를 더 세분해 혁명 가요, 통속 가요, 대중 가요(군중 가요), 노동 가요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혁명 가요는 이른바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되고 보급된 혁명적인 노래'라는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혁명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가요'도 이 장르에 포함된다. 통속 가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내용과 선율로 이뤄진 노래'다. 대중 가요(군중 가요)는 '인민 대중이 널리 부를 수 있도록 건전한 사상적 내용을 간결한 형식에 담은 통속적인 노래', 노동 가요는 '노동 생활 과정에서 인민의 체험과 지향, 사상 감정을 일상적인 생활 언어와 음악 형식으로 표현한 민요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결국, 북한식 대중 가요는 혁명 정신이 풍부하게 녹아있으면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방침이다. 이같은 북한 가요 창작 방침은 김일성이 1966년 발표한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비롯됐다. 김일성은 "인민들이 부를 수 있는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가 필요하다"며 "혁명적인 노래는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성은 구체적 방침으로 ① 지난날의 유행가식으로 하지 말 데 대한 문제, ② 노래 창작에서 다른 나라의 본을 따는 것과 같은 교조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식으로 할 데 대한 문제, ③ 군중 가요를 창작하는 데서 민요곡의 우수한 특성을 받아들이면서 민족성을 적극 살릴 데 대한 문제, ④ 노래 창작에서 유사성을 극복할 데 대한 문제, ⑤ 가사를 내용있게 잘 쓰며 시적이면서도 정치적 내용을 풍부하게 지을 데 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북한 음악은 혁명성에서 통속성으로 변화

북한 가요의 흐름은 개혁과 개방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통속성이 혁명성을 대체해나가고 있다. 아예 '휘파람' 류가 상징하는 청춘 남녀의 사랑이나 결혼식, 여성을 주제로 한 통속(대중) 가요가 노동당에 의해 공식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의 음악학자인 준박사 김득정은 최근 북한 예술 종합 잡지「조선예술」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 노래들에는 청춘들의 사랑, 우리 인민의 고유한 풍습 등 일상 생활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세대적인 저속한 생활 감정이란 조금도 없다"고 밝혔다.

김득정의 논문은 북한 가요를 장르에 따

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통속성이 주류가 된 북한 가요를 극찬하고 있다. 첫번째는 '당과 수령에 대한 다양한 양상의 송가들과 노래'이다. 그야말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 세습과 우상화를 정당화하는 노래이다. 대표적인 곡들로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수령님 한푼속에 우리는 사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이 따라 나갈 때', '그이 오신 날' 등이 있다.

두번째는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을 계승한 창작 혁명 가요가 있다. '10대 정강의 노래', '혁명 전통으로 무장하자', '자녀 교양의 노래' 등이 대표적이다.

세번째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생활적인 노래'들이다. 북한 최대 히트곡이라 할 수 있는 '휘파람'이 대표적인 노래이다. 이밖에 휘파람과 같은 계열인 '아직은 말 못해', 결혼식과 관련된 노래인 '축복하노라', '축배를 들자', '도시처녀 시집와요' 그리고 여성 관련 노래인 '녀성은 꽃이라네', '처녀시절' 등이 있다.

김득청은 이를 놓고 "가요 주제의 적극성과 다양성, 노래 창작에서 생활적인 내용의 반영과 다양한 선율 양상의 개척, 민속성·인민성·통속성을 철저히 구현한 우리식 노래의 풍격의 완성, 실로 이밖에도 우리의 가요 창작에서는 새로운 경지들이 개척되어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고 극찬하고 있다.

김정일이 가요의 통속화 주도

그렇다면 과연 북한 가요의 이같은 변화를 주도한 인물은 누구인가. 김득청은 논문에서 김정일이 바로 그 주체임을 명확히 못박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인 통속 가요 창작에 관한 사상 이론을 더욱 발전 풍부화하시고, 그 구현으로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특히 60년대부터 전자 음악에 매료됐다고 한다. 김득청은 "(김정일은)60년대에 벌써 전자 악기의 우점과 특성을 헤아려보시고, 그를 우리 음악에 복종시켜 독창적인 조선식 음악을 창조할 데 대하여 밝혀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가요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김정일의 지시로 창단된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이다.

'휘파람'은 바로 보천보전자악단의 대표작이다. 보천보악단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직속 관할 단체이다. 보천보외에 칠보산전자악단도 노동당 관할 하에 있으나, 정무원 주관 예술 단체인 왕재산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이 북한에서 2대 전자 악단으로 꼽힌다.

보천보경음악단은 1985년 6월 4일 김정일의 특별 지시로 결성됐다. 김일성의 대표적 혁명 격전지인 보천보에서 이름을 따왔다. 신디사이저 등 전자 악기가 사운드의 주

축이다. 문예총 부위원장 최상근을 단장으로 15 명의 작곡가·연주가·가수가 소속돼 있다. 노동당 방침에 따라 북한식 음악을 지향하고 있으나, 팝송 등 세계 각국의 대중 음악도 소화해낼 수 있다.

보천보 소속 대표적인 가수로는 '휘파람'의 전혜영을 비롯해 김광숙, 리경숙, 리분희, 조규화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민 배우들로 북한에서 1급 가수들이다. 보천보악단은 1991년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본 전국을 순회 공연하기도 했다.

왕재산경음악단이 북한 최초

왕재산경음악단은 보천보악단보다 앞서 창단된 북한 최초의 경음악단이다. 김정일의 지시로 1983년 7월 22일 결성됐다. 악단 이름은 김일성의 혁명 전적지인 왕재산혁명전적지에서 따왔다. 악단은 16 명의 전속 악단과 16 명의 무용수가 6 명의 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윤희, 김효숙, 염청, 최공호, 김순희, 오정운 등 6 명의 가수는 김정일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때문에 김정일이 주최하는 黨政 고위 간부 모임이나 외국인 참석 행사에서 공연한다.

왕재산은 주로 혁명적 가요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 악단의 대표작으로는 '내나라 제일로 좋아',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사회주의 지키세' 등이다.

90년대 들어 이 악단은 음악·무용 신작 발표회 등을 통해 김정일 영도력에 대한 찬양과 충성 맹세, 군의 혁명성 제고 및 사기 진작, 사회주의 체제 고수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왕재산악단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참석차 방북한 남측 대표단을 위해 두 차례 공연한 바 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37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에서 열린 1991년 상해국제음악축전에도 참가하는 등 해외 공연 활동도 하고 있다. 인민 배우 김광숙, 공훈 배우 리경숙, 공훈 배우 리분희, 공훈 배우 조규화 등이 왕재산악단의 가수들이다.

대표적 가요 작곡가는 이종오

북한 가요의 통속성을 선도하는 대표적 작곡가는 바로 '휘파람'을 작곡한 인민 예술가 이종오이다. 1991년 북한 예술인들의 영예라고 하는 '김일성장'을 받았으며 보천보전자악단 소속이다. 1991년에는 대표작인 '휘파람', '축배를 들자' 등 15 곡을 담은 '리종오 작곡집-보천보전자악단'이라는 CD가 북한에서 발매하기도 했다.

북한의 문학예술종합출판사가 1993년 펴낸 「보천보전자악단 노래집」에 보면, 보천보에 대한 김정일의 애착은 남달라 보인다. 김정일은 "보천보전자악단의 음악은 우리식의 요구를 구현하여 전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취미와 정서에 맞는 조선식 음악을 훌륭히 창조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고 극찬하고 있다.

이같은 김정일의 방침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종오의 또 다른 대표작은 결혼식 축하곡인 ‘축배를 들자’이다. 북한에서 꽤 유명한 최로사가 작사했고 보천보의 대표적 가수 이경숙이 노래했다. 가사는 어렵다.

- (1절) 잘생겼다 일 잘한다 소문난 총각
 색시감을 고른 솜씨 멋이로구나
- (2절) 신랑신부 웃음꽃이 활짝 폈으니
 첫아기는 튼림없이 옥동자라네
- (3절) 신랑 신부 검은 머리 백발되어도
 변함없는 사랑속에 젊어 있으리
- (후렴) 우리 세월 좋아 로동당이 좋아
 축배 축배 축배를 들자

물론, 이종오도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한 노래를 더 많이 작곡했다. ‘젊음을 드리고 싶어’, ‘남해(南海)가의 붉은 꽃’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 가요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지시받아

북한에서 모든 예술의 정책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당에서 중점을 두고 육성한 기관이 선전선동부일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음악도 당연히 김정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북한의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이다.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문화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정무원 문화예술부는 이를 집행·지도한다.

북한에서는 음악을 비롯한 각 분야의 문예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예술인들에 대한 상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가 펴낸 「문학예술사선」은 대체로 인민 예술가, 인민 배우, 공훈 예술가, 공훈 배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5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된 인민 배우가 가장 오래된 칭호다. 인민 예술가는 196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돼 노동당의 문예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경우에 수여받는다고 한다. 인민 예술가, 공훈 예술가는 주로 회화, 조각, 작곡, 공예 등의 분야에서 받으며, 인민 배우나 공훈 배우는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교예 등 예술 부분의 배우에게 수여된다. 인민 배우, 공훈 배우 칭호를 받게 되면 급수에 따라 15~25%의 가산금을 받는다.

김정일의 주도로 북한 가요가 변하고 있지만, 이를 북한의 변화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일의 음악적 감성이 북한 가요의 통속성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개혁·개방이 점차 진행되면 필수록 북한 가요도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號**